

〈卷頭言〉

經濟團體運營과 實際

全國經濟人聯合會

常任理事兼事務局長

尹 泰 業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經濟團體가 생기게 되었으며 經濟團體가 창설됨으로 인하여 경제가 더욱 조직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各國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史實이다. 그러므로 經濟團體의 成長史가 곧 經濟發展史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단체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130 여개를 헤아리는 大·小經濟團體가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비교적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로서는 商工會議所·經濟人協會·貿易協會·紡織協會·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洋炭工業協會·建設協會·金融團·製粉協會·保險協會·穀物協會·製紙工業聯合會·蠶絲會·鑛業會·合板協會·炭鑛協會·水産協同組合中央會·生産性本部·製糖協會·메리야스工業協同組合聯合會·梳毛紡協會·織物工業協同組合聯合會·化學纖維工業協會·證券協會· 고무工業協會·타이어工業協會·石油協會·窯業總協會·製鋼工業協會·工藝協會·船主協會·關稅協會 其他 各種協同組合 또는 輸出組合 등 약 30 개소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運營難에 빠진 곳이 많은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經濟團體의 起點을 보면 물론 商工會議所 같은 데는 近一世紀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1945년 해방 이후에 발족된 것으로서 연륜이 불과 스무살 내외인 것이다. 이것을 다시 세분하여 보면 1945년의 해방당시에서 1950년의 동란까지 약 5년간 즉 建國初期에는 약 50개의 經濟團體가 있었는데 1953年 還都以後 오늘날까지에 약 80 여개의 단체가 新生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가 그만큼 크게 자라난 것을 經濟團體 增加의 數의面에서 능히 엿볼 수 있는 바이다.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本稿에서 經濟團體의 存在意義를 한번 고찰해 보면 우선 ① 壓力團體라는 名牌가 그 대표적인 명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즉 力學의 原理에서 「하나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多數

의 동원 힘」으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므로 이는 일종의 압력을 갖고 行政府 또는 立法府의 經濟政策 또는 經濟立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통례인 것이다. ② 그 다음이 工業界의 門牌이며 대변하는 戶主라 할 것이다. 「중이 제머리를 못감는다」는 격으로 만약 그 業界에서 규합된 단체를 갖고 있지 못한다면 正論이든 曲論이든 간에 이것이 公論이 되지 못하고 業者 개인개인이 뽀뽀이 「까마귀 제소리」격으로 아전인수의 私談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業界의 公益을 대변할 수 있는 주인이 없다는 말이 되고 만다.

③ 세째로는 近代의 運營精神은 저렴한 값과 良質의 물건과 대량생산으로 소비대중에게 봉사해야 하며 옛날과 같이 독점 독주의 기업은 있을 수 없고 고도의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業者間의 共存과 理解의 조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절에서도 더욱 단체의 존립 의의는 큰 것이며 ④ 네째로는 그 業界의 人材를 양성한다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람은 社會的 動物이므로 서로 모이는데서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자신의 연마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경제단체에서 그 나라 財界의 지도 체계를 딱 이루여 놓고서 有能한 인물들의 序列을 세운 후 대외적으로는 海外에 파견하여 견문을 넓혀주고 대내적으로는 「리더쉽」을 길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만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유능한 한 사람의 힘이나 두뇌가, 경제는 물론 그 국가민족의 운명이나 인류사회 전체에 끼치는 공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발명가 에디슨이나 사업가 카야네기를 연상할 때에 자명한 노릇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단체가 갖는 多元的인 意義中에서도 모이고 세련되고 협동하고 서로의 인격과 역량을 기른다는 것이 가장 뜻깊은 일인 바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經濟團體들이

갖는 너무도 많은 고충이 있고 그 때문에 가물에 팔라 붙은 보리 이삭 처럼 시들시들한 채로 殘命을 유지하려고 허덕허덕하는 단체가 비일비재하다. 그 원인을 캐어보면 ① 첫째로 그 構成員인 業者들의 이해력 부족과 公益보다는 私益에 속하는 이해 타산이 앞선다는가 또는 단체의 힘이 약한데 있지 않나 한다.

근자 흔히 우리가 業者들로부터 「會費의 댓가가 무엇인가」, 「너무 단체가 많아서 생산 「코스트」가 「푸쉬」된다」, 「유명무실한 존재이니 有無同樣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물론 얼핏 듣기에는 일리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긴 눈으로 경제발전 내지 사회발전 또는 業界의 公益을 바라볼 때에는 上記한 이유들은 역시 성급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방 羊에게 들을 뜰어 먹이고 곧 젖이 안나온다고 羊을 치지 않을 수는 없다. 羊이 풀을 먹은 후 그것이 胃中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천천히 젖이 되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단체의 효과는 개개 構成員에게 「기브 앤드 테이크」식인 直席式 효과란 얻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매일 中天에 뜨는 太陽光線과 호호하고 있는 공기의 고마움과 댓가를 직감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長期에 걸친 輿論의 형성과 그 압력이 서서히 원하는 목적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直感 못하는 것이다.

단체의 사업이란 벨딩을 지을 때 한장 한장 쌓아 올리는 벽돌장의 부피 같이 눈에 直視되는 것도 아니며 個會員에게 빵 배급주듯이 하나하나의 이익을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떤 구성원에게는 불리한 일일지라도 多數構成員이나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된다고 예견될 때에는 이를 감행하는 것이 단체의 존재가치를 더욱 빛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國民이 세금을 낼 때에 꼭 이돈은 洞里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와 먼 거리일지라도 어딘가 국가를 위하여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기꺼이 내는 것이나, 赤十字會費를 낼 때에 이 돈이 地球의 어느 쪽이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뻐하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같이 자기가 맘을 흘려 번 돈의 일부를 業界의 公益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회구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② 다음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좀더 민주정신에 입각하여 단체의 여론을 존중하고 단체를 직접·간접으로 육성함으로써 發展의 始動機가 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수많은 단체에서 年中 輿論의 結晶으로써 허다한 建議, 陳情, 意見書를

제출한다 해도 「또 我田引水의 利속 차리자는 것이겠지」하고 馬耳東風식으로 취급되어 관리들의 책상철함에서 휴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중에는 玉石이 혼동된 것도 있었지만 이를 傾聽하여 쾌히 받아들임으로써 경제건설의 捷徑을 열마던지 따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단체에 대한 抗辯을 들으면 「단체의 진의가 얼마나 정부에 가서 반영되었는가」라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經濟團體의 輿論이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가」라는 점을 분석하여 본다면 특히 近者에 와서는 단지 時差가 있을 뿐이지 얼마 후에 보던 거의 다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에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진작 과감한 태도로 즉석에서 예스나 노의 판단을 내리셔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올바른 경제 政策이 당장 실시되어 경제 발전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는 간접적으로 단체를 육성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고 사업가들의 보다 굳은 협동과 양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줄 안다.

이런 뜻에서 금후 행정부나 입법부의 高位當局者들은 實務官吏들의 所見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직접 그 事端에 대하여 깊은 思考의 판단을 내려야 할 줄 안다. 이의 좋은 예로써는 지금 大統領臨席下에 열리는 靑瓦臺貿易擴大會議이 얼마나 큰 영향과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약한 우리가 그 태도 수출의 伸張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치 못할 사실로 부각되고 있는 바이다.

③ 세째로는 事業家들로부터 단체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公論인데 이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 경제계에서는 아직도 부담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단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十匙一飯으로 다같이 공평한 부담아래 運營되어지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는 돈내는 사람과 돈 안내는 사람으로 딱 구분되어 있고 또 이것이 관습화되어 버려서 「아— 그 사람은 잘 안 내니 그만두고 누구 누구에 부탁하자」는 식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모두들 매달리니 출혈이 과하다는 비평이 나오는 당연한 노릇이다.

물론 동서 고금을 통하여 公德心이 많은 人間界과 私利 이외의 모르는 守鐵型이 있지만 적어도 오늘의 근대화에서 事業家라는 긍지를 갖는이라면 後者型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先進國의 어떤 유명한 실업가가 「그 해에 번 돈 중에서 3분의 1을 社會公益에 쓰고 3분의 1을 再投資에 쓰고 3분의 1을 배당함」이 現代의 經營

精神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보았는데 과연 합리적 인듯 하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경제社會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 전반에 걸쳐서 인류 문명이 전진되고 개발되고 근대화됨에 따라서 그 組織이 작고 多岐化·專門化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인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組織體씨클·專門機構가 한없이 많이 늘어나가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복잡한 現代문명의 무거운 짐을 分散消化시켜서 더욱 더 큰 효과와 전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年前에 經濟人協會와 日本經團連의 공동주최하에 열린 韓日「에코노미스타·미팅」에서 이런 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는데 일 예를 들면 일본에는 단체가 分岐化될 대로 되어서 심지어 「防銷協會」같은 단체까지 생기어 매년 정부로부터 數億圓의 보조와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年間 全國의 公私有間 鐵道物防銷(쇠 녹쓰는 것을 막는)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여 그 損耗防止에 數十億圓의 눈에 안보이는 利益을 가져온다고 하는데 자기네들도 실은 歐美에 비하면 너무 뒤떨어지게 착수해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체를 細分組織하려면 아직 전도요원하지 않을까 한다.

各 工場의 機械·橋梁 기타 수없이 風酸化되고 있는 소모가 얼마나 많겠는가? 上述한 바는 한가지 작은 예에 지나지 않지만 아뭏든 우리는 근대화 역행되는 戰前의 日本式인 劃一主義的이며 百貨店式的 劃一思考로부터 떠나서 西歐的인 專門多岐化方向으로 포인트를 더닝시켜야 할 것이다.

개론적으로 構成員이 좀더 긴 안목으로 公益을 위하여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行政·立法府가 이를 뒷받침해주어 오늘날 흔히 創立總會에 뒤이어 몇몇 임원들의

포켓을 털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이 하루속히 활기를 띠우도록 하는 것만이 經濟社會發展과 社會福祉建設에 뿌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또한 흔히 構成員들로부터 團體執行當局이 無能하다, 一部構成員만을 두둔한다는 등의 非難도 있으며 또한 이런 事例가 있는 것도 사실인듯 하다. 그러므로 團體를 運營하는 執行者들의 올바른 자세와 公平原則에 대한 신념과 일에 대한 능력과 良識이 갖추어지는 데서 모든 일이 春雪녹듯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事實上 團體를 運營하는 執行當局者들의 責任이란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닌 줄 안다. 모든 構成員에게 마치 觀光案内員 같이 親切과 謙遜과 微笑를 주어야 하며 그 業界에 精通하여 어떤 問題라도 다 알고 있는 萬物博士가 되어야 하며 그야말로 無에서 有를 創造할 수 있는 迫力과 「아이디어」가 없어서는 到底何 團體를 運營해 나갈 수 없으리라고 生覺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團體運營을 맡은 執行當局者들은 恒常 그 業界의 發展을 爲하여 專門的인 研究와 最善의 努力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萬若 構成員들의 出費가 공돈인양 여기며 册床만 지키고 앉아 있다면 그 業界의 發展은 勿論이러니와 構成員들로부터 無能하다는 指彈과 아울러 그 團體가 有名無實한 存在가 되고말 것이다. 要는 ① 政府가 可能한 限 團體를 強力히 밀어주고 ② 그 構成員들은 그 團體에 깊은 鄉愁를 갖고 物心兩面으로 서로 協調하고 ③ 團體의 執行當局者들은 專門的인 識見과 誠實한 努力과 經費의 節約에 힘쓰며 人和를 圖謀하여 運營해 나간다면 그 團體는 그 業界에 없어서는 안될 原動力이 될 것이며 萬世磐石 위에 서게 될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編輯者 註=本文은 67年 8月號 「經協」誌에서 轉載함)



意慾있는 사람에게만 「問題」는 發見된다

問題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매일 눈 앞에 닥치는 目前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現狀에 구애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자세」를 찾는 데 있다 즉 現在를 보다 좋게 할 未來像을 찾는 데 있는 것이다.

問題意識을 가진다는 것은 이러한 「겉」을 意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問題」는 「그렇게 해야 할 자세」를 求하여 하루 하루 자기의 任務를 追求하는 의욕적인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다. 問題는 생각하는 사람,

關心이있는 사람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發見된다.

일이 잘 될때 사람들은 흔히「問題 없습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체는 問題가 있는데도, 君子는 危險한데 가까이 간다. 問題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나을 리없다...이러한데 문제가 없다고 하기 쉽다.

大過가 없고 失敗가 없고 問題가 없는 것은 좋다 그러나 組織을 좀먹는 것은 問題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問題를 일으키라, 계속해서 問題를 일으키라. <土光敏夫 著 「經營의 行動指針」에서